

저출산 사회에서 지역사회연계와 정책참여를 통한 가정과교육의 역할

이경숙*
경상대학교 대학원*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a Low Fertility Society by Community Involvement,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Lee, Gyeong Suk*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a low fertility society in the contexts of curriculum contents, community involvement,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The results showed following. First, home economics is a key subject matter in dealing with a low fertility problem among 2007 revised curriculum for secondary education level.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was systematically organized through 8th grade to 10th grade in 4 units, where as curricula contents of social studies, science, and moral education deal with a low fertility problem in partial. Second, it is proposed to be active in community involvement incorporating with secondary education, college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by service learning, outreach program, and extension program. Third, public policy and advocacy particip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are crucial for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practice in enhancing the condition of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wellbeing such as a low fertility problem. To perform this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participate in developing curricula and teaching materials for the extra curricula activity, creative experiencing activity, and service learning activity. Home economics teacher educators also should actively involved in outreach program and extension program as well as in public policy advocacy activity for solving a low fertility problem.

Key words: 저출산 사회(low fertility society), 지역사회연계(community involvement), 정책참여(public policy participation), 지지활동(advocacy)

1) 교신저자: Lee, Gyeongsuk, 501 Jinjudaero,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Republic of Korea.
Tel: 055-772-2240, Fax: 055-756-5638, E-mail: towoo2@dreamwiz.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Pendergast(2011)는 코펜하겐 미래학연구소의 2020년을 향한 10대 메가트렌드로 고령화, 세계화, 기술의 발달, 번창(Prosperity), 개인화, 상업화, 건강과 환경, 가속화, 네트워크의 조직, 도시화를 소개하면서 가정학자들은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첫 번째 메가트렌드로 출산율의 감소와 생명연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령화를 들고 있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10년 통계청 자료에서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2007년의 1.25명을 제외하면 10년간의 출산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 자료만으로 출산율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출산율의 추이가 다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국가와 가까운 일본과도 조금은 다르다. 통계청(2004)의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1975년의 경우 일본 1.91명, 영국 1.81명, 프랑스 1.93명, 독일 1.48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3.4명으로 인구문제에서는 오히려 산아제한이라는 가족계획정책을 펴고 있었다. 불과 10여년 후 1989년 1.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도 빠른 속도로 출산율 감소를 보여 왔다. 인구관련 정책,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의 부재가 주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교육계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크게 '재정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직장과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육아에 대한 우호적 사회 인프라 조성'(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등의 정책과제를 내어 놓고 있고, 여전히 금전적인 지원지원에 중심을 둔 출산과 양육환경, 일-가정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중심은 가족으로 개인주의 가치

관의 확산과 공동체적 가치관의 퇴색, 이혼율의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관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교과는 다른 교과보다 저출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가지고 있는 교과이다. 왜냐하면 가족단위에서 결혼, 부모됨, 자녀양육 등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지도록 부모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과 함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과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원관리와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Brown과 Paolucci(1979)와 Brown(1980)은 가정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으로 규정하고, 이 학문의 기초를 비판철학에 두어 민주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자율적인 힘이 있는 성숙한 가족으로 교육하여 가정과 교육을 통한 가족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채정현, 이수희, 유태명, 2010: 140). 채정현 외(2010: 143)는 '가족개혁'을 통해 가족의 일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을 주요내용으로 삼아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의 교육을 가정과 교육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국가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선호, 성역할의 고정관념(sex role stereo types)등의 전통적인 가족이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 변혁의 주체는 개인과 가족의 힘이며, 가정교과의 역할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율적인 힘(empowerment)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교육은 교과내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공공정책 지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가정과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가정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현

해 나감으로써 가정과교육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II. 저출산 문제를 위해 가정과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제 측면

1. 가정교과 내용을 통한 기여 측면

인구교육에 대한 논의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발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도 2006년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가정과교육에 바란다.’(김양희, 2006)와 2007년 동계학술대회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와 가정과 교육의 방향’(윤인경, 2008)의 주제로 가정과교육에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가정과 교육에서도 저출산 관련 연구(박수경, 2009; 양정혜, 2007, 2010; 윤인경, 박선영, 2007; 장진경, 2005)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도 이슈화가 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출산 관련 국가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10)는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의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담은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계는 이러한 국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강조함으로써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저출산 대비 교육과 관련된 교과는 가정교과와 함께 사회, 과학, 도덕을 들 수 있다. 2007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출산과 관련한 내용을 성격과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안내와 단원의 분량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정교과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성격과 교수학습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 과학, 도덕에서는 교육내용으로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교과 내용체계와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사회, 과학과 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가정교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교과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8학년의 대단원 <가족의 이해> - 중단원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관계>, 9학년의 대단원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 중단원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와 대단원 <가정생활과 복지> - 중단원 <가족 복지 서비스>, 10학년의 대단원 <미래의 가족생활> - 중단원 <배우자

<표 1> 2007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제시된 저출산 관련 내용

교과	교육과정 성격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
		학년	대단원	중단원	단원수준 (단원 수)	
가정	○	8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	중단원(2)	○
				가족관계		
		9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과 직업 생활	중단원(2)	
				가족 복지 서비스		
		10	미래의 가족생활	배우자 선택과 결혼	중단원(4)	
				부모됨과 임신		
출산 가족돌보기						
사회	×	7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인구문제-노령화와 저출산(소단원)	소단원(1)	×
과학	×	9	생식과 발생	생식과 발생-사람의 임신과 출산(소단원)	소단원(1)	×
도덕	×	7	예절과 도덕	가정생활과 도덕	중단원(1)	×

선택과 결혼>, <부모됨과 임신>, <출산>, <가족 돌보기> 단원에서 가족의 이해와 가치관, 양성평등,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결혼, 부모됨, 임신, 출산, 가족돌보기, 생애설계와 가족복지의 내용으로 미래의 건강한 가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도록 하며,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가치관의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사회교과에서는 7학년 지리영역의 대단원<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중단원<인구문제>에서 소단원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로 여러 가지 사회현상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내용에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인구문제(인구급증, 고령화, 성비불균형)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로 제시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과학교과에서는 9학년 <생명>영역의 대단원 <생식과 발생> - 중단원 <생식과 발생>에서 소단원으로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이해한다.’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도덕교과의 경우 대단원 <예절과 도덕> -

중단원 <가정생활과 도덕>에서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애 있는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나의 삶에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의 내용을 지도하도록 하였으나(교육인적자원부, 2007d),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저출산 대비교육은 타 교과에서보다 가정교과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체계로 실천중심과 가치관 교육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교과에서의 저출산 대비교육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과교육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하위 영역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캠페인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2007 개정 ‘가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

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단원	가족의 이해 ▪ 변화하는 가족 ▪ 가족관계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 가정생활과 직업 생활 가정생활과 복지 ▪ 가족 복지 서비스	미래의 가족생활 ▪ 배우자 선택과 결혼 ▪ 부모됨과 임신 ▪ 출산 ▪ 가족 돌보기
학년별 내용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형태,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한다.	가족생활 주기적 관점, 경제적 자립 관점을 반영하여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가족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가족 구성원이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교수 학습 방법	가족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여 가족으로서 건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가족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과 관련된 실습을 통해 가족생활 주기별 가족 구성원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을 깨달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한다. 가족 구성원의 발달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인식하여 가족 간에 서로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교수 학습 방법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정의 의의와 역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가정의 일과 직업과의 상호 관련성 및 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양성평등한 가족 역할 분담 등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a)

이를 위해 전국단위 및 시·도교육청 단위 등의 가정교과교육연구회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수업의 사례와 프로젝트 과제형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남중등 인구교육 교과연구회(2010)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적용가능한 중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와 이수희(2005)의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과 같이 이미 개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한국가정교육학회와 전국의 가정교과교육연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물로 개발되어 연구학교 네트워크(<http://modelschool.edunet.net/>)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관 형성(합덕중학교, 2010)’, ‘인구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관 형성(교동중학교, 2009)’, ‘학교인구교육을 통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부흥중학교, 2008)’ 등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많은 가정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범교과 학습을 들고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교육활동 사례로 상술하고 있으므로, 가정교육에서는 저출산 관련 범교과 주제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기여 측면

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가정교육학(가정학)의 지역사회에서의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언급된 역사는 매우 길다. 1902년 제 4차 Lake Placid Conference에서 합의한 가정학의 정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문의 대상을 ① 인간의 근접환경과 ②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③ 이 둘과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진술된 이 정의에서 사회적 존재는 좁게는 1인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가족과의 관계 측면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대에 와서 지역사회, 사회, 문화의 맥락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의 본질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가정학회(AAFCS, 2000)가 제시한 학회의 전략방향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가정학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가정학회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환경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을 개선하는데 학회의 지도력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Baldwin(1995)은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가정학 전공자의 역할을 가정학 내외의 장에서 제안하였는데, 그 골자로 ‘변혁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유태명(2003)은 지역사회를 상호의존과 연대의 특성을 가진 구성원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영위하는 사회조직으로 개인의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공동의 관심을 가진 공론영역에서 리더십과 이성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조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실체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 경제적 매개체와 정치 행정적 매개체를 기반으로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역사회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요소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회조직이다. 즉, 개인과 가족이 경험, 의미, 문화를 형성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으로서 개인과 가족과 상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 정치의 체계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가정학의 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인간, 가족,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나 서비스에 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혹은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의 장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나. 지역사회에의 기여방향

국내·외의 가정교과 교육학과 현장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연계해야하는 정당성, 교육과정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방법의 개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보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같이 청소년이 교실 안에서의 교과활동만으로 문

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태명(2003: 15)은 가정교과교육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으로 개인과 가족 사회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조직이고, 2) 가정교육은 개인적 서비스 전문분야(personal service profession)에 속하는 학문분야로 가족이 가정생활의 행동체계를 자율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과 가족, 그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과 교사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1)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미국의 FCCLA(Family, Career and Community Leaders of America) 프로그램은 중등학생의 가정교과 동아리 활동 조직이다. FCCLA에는 가족관련 프로그램과, 직업연계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Garrison(2007)은 FCCLA의 7개의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경험을 통해 연계 되는 이점은 개인적 성장, 학업성취의 향상, 직업에 대한 각성과 고용기술의 향상을 가져오며, 개인적 관계형성을 지지하고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FCCLA같은 동아리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계몽과 자기 발전을 위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FCCLA와 같은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가정동아리 활동대회도 열리고 있다. 또한 채정현 외(2010: 147-149)는 일본의 2009년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홈프로젝트와 학교가정클럽활동의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한 범교과 학습 활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교육’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출산·양육·가족친화 슬로건 공모(경기복지재단, 2010)’, ‘저출산

극복 UCC공모’ 등의 참여를 통한 학습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소년들의 모임인 ISY(유아보장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자원봉사,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ISY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가정교과에서 멘토지원단으로 참여하여 동아리활동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가정교육학회가 2010년에 UCC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전국동아리활동 경연대회를 계획하여 홍보하기를 제안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현장에서의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정신적·심리적 성숙,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자신들의 미래, 가족과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대학 차원에서 가정교육 전공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가정교육 전공자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가정교육 전문가 커뮤니티 형성과 유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파견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이나 생활지도프로그램/지역사회 확대교육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Yoo(1991)는 대학 가정교육학의 중핵 교육과정의 본질을 규명하였는데 비판 과학적 가정과 교육의 목표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중핵요소를 철학·역사적, 비판적, 개념적, 실천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여 내용과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중핵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 사회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전문활동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Smith(1995)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에서 3791명의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학의 중핵 교육과정 요소로 적합한 가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가정학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지역사회

회(commun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지적교섭(commerce)으로 제시하였다. 즉, 세 개념을 중심으로 가정학의 모든 영역의 교육, 연구, 서비스에 역점을 둘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가정학 전공자의 교육과 실무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won(2009)은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은 봉사 경험이 지역사회 봉사과 반성을 바탕으로 가정교육에 실천적 과정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는 봉사학습 내용(content)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육에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실습과목으로 요목(syllabi)에 봉사학습을 구성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CCIA(Community Coalition in Action Project)는 인간생태 이론을 근간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여러 단체나 사업체, 개인, 병원, 교육기관 등의 미시간주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협동적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수행하였다(Keith et al., 1993). Perkins 외(1994)는 CCIA에 참여한 지원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고, 가정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파트너를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생활지도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은 연방 정부의 농무성, 주정부, 카운티, 지역사회 대학이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부분 주의 경우 카운티의 생활지도사가 실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프로그램은 4-H 청소년 개발, 농업; 지역사회 자원 및 경제 개발, 가족발달 및 자원관리; 지도력 및 자원봉사 개발,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영양, 다이어트, 건강의 7개영역으로 되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경우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확장부가 연방 정부와 오하이오주 각 카운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대학확장부에서는 가정학, 농업 및 자연과학, 지역개발, 4-H 청소년 개발,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영역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김외숙, 2002).

중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가정교육학회는 일찍이 2003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방향’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연숙(2003)의 ‘가정과 교육의 평생교육적 관점과 방향’과 전세경(2003)의 ‘가정과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자들은 가정과 교사가 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부 평생교육 시범 연구학교의 사례, 평생교육사와 가정생활교육사의 자격증 등을 다루어 평생교육을 통한 가정교육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최근에는 전미경·오경선(2010)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부모와 함께 듣는 가정수업으로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인구보건복지 협회는 청소년 보건 복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3개 지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건 복지 봉사단을 구성하여 대학 내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봉사단의 조직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가정과 교사들이 참여한다면 봉사단 활동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기반 교육활동에 가족·아동·육아·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 등과 관련한 지식을 두루 갖춘 가정과 교사를 전문적인 강사풀로 구성하여 교육적 활동을 한다면, 지역민에게 가정과 교육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내용과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사풀의 교사들에게는 현장에서 교사 연수 이수에 부합하는 학점을 인정해주어 가정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을 통한 기여 측면

가정학은 초창기부터 가족을 기능하도록 돕기 위한 임무를 가진 개혁적인(reformist) 학문 분야로서 특징지어져 왔다(Vincenti, 1981).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

AAFCS(미국가정학회, 2000)는 학회의 전략방향 중의 하나로 공공정책 참여와 지지활동(advocacy)을 포함하였고, 이를 위해서 공공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 학회의 지도력을 제공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IFHE(세계가정학회, 2008)와 HEIA(호주가정학회, 2010) 또한 가정학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옹호자로서 안녕을 증진시키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옹호하기 위해 비판적·변혁적·해방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정책 참여와 지지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IFHE(세계가정학회, 2011)는 IFHE Position Statements를 통해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8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가정학의 노력을 강화하고 기초자원으로서 가난과 약재를 종결하는데 적극 동참함을 밝힌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가정교과의 역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가 2011년 하계 학술대회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저출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련 학회로 인정받아 개최한 것도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문제 및 사회 현안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Moore와 Young(1987)은 가정교과에서 공공 정책참여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가정교과에서는 공공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더 나은 사고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과 지지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공공정책 교육(Public policy education)과, 둘째로 책임 있는 지지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한 개인과 집단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지지활동(Advocacy)프로그램, 셋째로 가정학자로서 숙고하는 교육자 또는 깊이 성찰하여 옹호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지지(Organizational maintenance)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참여 과정은 개인측면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가정학 전문가 집단측면에서는 교과의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교과

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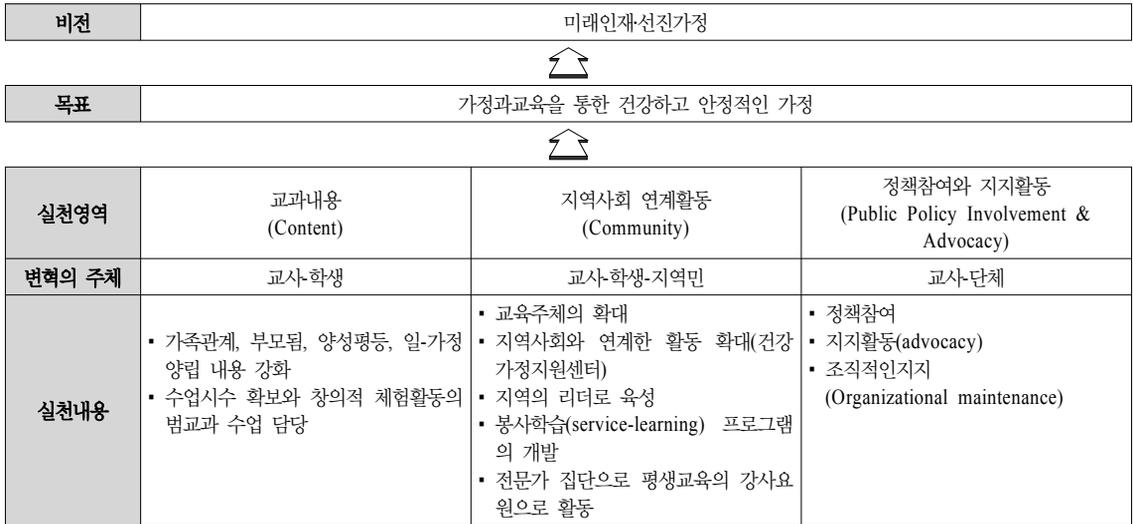
공공정책 참여가 가정교과 교육과정 설계에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가정학회(AAFCS, 2000)는 가정학의 2차원적인 학문구조를 제안하였는데 공공정책을 전 가정학 하위 학문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합개념에 포함하였다. 통합개념으로 인간의 기초적 필요, 의사소통 기술, 공공정책, 비판적 사고, 다양성, 세계적 관점, 전문가 의식, 창의적 사고, 지역사회 개발, 기술,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발달을 제안하였다. 하위 학문영역을 건강, 식품, 의류와 직물, 주거, 경제와 관리,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도력, 복지로 제안하였다. 2012년 현재 미국가정학회 홈페이지는 Advocacy를 주요 학회 활동으로 삼고 있다.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로 금융교육, 건강과 복지, 육아를 정하고 있으며, 미국가정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학회의 지원으로 제안된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그동안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서 개인 및 기관회원의 Advocacy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으로 Advocacy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HEIA(2010)는 호주교육평가보고청(ACARA: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에서 2011-2013년에 3단계로 진행 중인 가정교과교육을 위한 양질의 국가적인 지침 개발을 위한 제안서에서 ‘가족구조와 가족이 기능하는 방법’의 교육내용 영역에서 호주 젊은이에게 직면하고 있는 변화와 도전의 과제로 출산을 저하의 문제를 다루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가정과 교육내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변화를 위해 지지활동을 통하여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과 같은 일반적 역량(general capabilities)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정교과교육 전문가는 공공정책에 참여와 지지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개인,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교과, 안정적인고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가정교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교과내용, 지역사회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세 실천영역에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교육의 실천내용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우리교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한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로 힘겨운 분투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림 1]에 제안된 세 실천 영역에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치관으로 변화하도록 교육시키는 가정교육의 역할을 주장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정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역할을 가정교육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대안적 방법을 찾아보고 가정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가정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가정교육과 사회, 과학, 도덕교과와 비교해본 결과, 가정교육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대단원 <가족의 이해>,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가정생활과 복지>, <미래의 가족생활>에서 결혼, 부모됨, 자녀 양육,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의 교육내용으로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중단원 <인구문제>에서 소단원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중단원 <생식과 발생>에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중단원 <가정생활과 도덕>에서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가정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주 교과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책임도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와 프로젝트 과제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타교과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부모됨,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내용을 강화하고 있어 학습자의 가족관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비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의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이슈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등 다른 가족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과에서 다루어야 한다.

둘째, 가정교육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내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중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초로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에게 가정과 지역사회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확대하고, 봉사학습(service-learning)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정교육 분야에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교과의 역량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학 전문가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교사와 가정학 관련 단체는 정책에 참여하고 조직적인 지지활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가정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 전국가정교과교육연구모임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정과 교사 각자의 교직활동 전반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과 교사, 예비 가정과 교사 교육자, 학생, 지역민, 가정과 교육관련 단체 모두가 주체가 되어 가정교과의 내용, 지역사회 연계활동, 정책 참여와 지지활동의 영역에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

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아동·육아·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들을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며,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으로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교과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정교육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의 가정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미래에 경쟁력 있는(future-proofing) 도전적인 과제가 가정교육에서 제공될 때 교육에서의 위상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 중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가정교육에 대한 신뢰와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가정교육의 비전은 ‘미래인재·선진가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교과는 미래를 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과로 당당히 서야 하며, 가정교사는 교과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춘 뜻을 품고(魂),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수법, 교과지식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創), 국가-지역사회-학생-교사가 서로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通) 교사역량을 기를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경남중등 인구교육 교과연구회 (2010).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적용가능한 중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 경상남도 교육청.
- 교동중학교 (2009). **인구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관 형성**. 대구광역시 교육청지정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고시 제 2009-41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7a).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교육인적자원부 (2007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7].

교육인적자원부 (2007c).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9].

교육인적자원부 (2007d).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6].

김양희 (2006). 저출산 고령사회시대에 가정과 교육에 바란다.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2006년 동계학술자료집**.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김의숙 (2002). 미국 가정학의 대학확장교육활동(Extension)의 동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93-202.

박수경 (2009). 고등학교 기술·가정 '부모담'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실천적 추론 수업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부흥중학교 (2008). **학교인구교육을 통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부산광역시 교육청지정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양정혜(2007).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가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2), 195-215.

양정혜(2010). 일-가족 균형적 관점에서 본 실과(기술·가정)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2), 357-378.

유태명(2003). 가정교육 전공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윤인경, 박선영 (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가정 교과 교과서 분석. **직업교육연구**, 26(1), 180-199.

윤인경 (2008). 미래 사회의 요구와 가정과 교육의 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7년 동계학술자료집**.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이연숙 (2003). 가정과교육의 평생교육적 관점과 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수희 (2005).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의 개발과 적용-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113-129.

장진경 (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전미경, 오경선 (2010). 가정교과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교육과 실천사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95-116.

전세경 (2003). 가정과교육에서의 평생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채정현, 이수희, 유태명 (2010).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139-154.

통계청 (2004). 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보도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연구 백서**.

합덕중학교 (2010).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관 형성. 충청남도교육청지정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AAFCS (2000). 2000-2005 Strategic Plan. The Author.

Baldwin, E. E. (1995). Transformative professional practice: Overcoming ambivalence, building community. *Forum*, 8(2), 21-37.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HEA.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apolis: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Garrison, A. K. (2007). The benefits of the FCCLA student organization: A Grounded theory stud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ome Economics Institute of Australia Inc (2010). Home economics and the Australian Curriculum Position paper. *Journal of the HEIA*, 17(3). 1-13.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2008). *IFHE Position Statement - Home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Bonn: IF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2011). *Position Statements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1*. Bonn: IFHE.

Kwon, Y. (2009). Designing Service-learning Courses through the Analysis of Service-learning Course Syllabi and Faculty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0, 99-112.

Keith, J. G. et. al. (1993). Building and maintaining community coalitions on behalf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oore, E. and Young, A. A. (1987). Three Directions For Public Policy Involvement. *Home Economics Forum*. 2(1), 6-7.

- Pendergast, D. (2011). Families as social capital: The choice of future generation - Creating Home Economics Futur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ies as Social Capital.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3-23, Seoul, Korea.
- Perkin, D. F. et. al. (1994). Getting dinosaurs to dance: Community collaboration as applications of ecological theory. *Forum*, 7(1), 39-47.
- Smith, F. M. (1995). From home economics to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ew university core concept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7(2), 13-20.
- Vincenti, V. (1981).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Yoo, T. (1991). The need for a reconceptualization of a core curriculum in undergraduate home economics education: A theoretical-critical consideration of major historical issues and practical concerns in the fiel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경기복지재단 (2010). 2010 경기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출산·양육·가족친화 “슬로건” 공모. [<http://www.ggwf.or.kr/gfnews/gfnotice/userBbs/bbsView.do>]
- 보건복지부 (2010). 새로마지 플랜 2015 [<http://www.mw.go.kr>]
- 연구학교 네트워크 (2012). [<http://modelshool.edunet.net/>]
- 연합뉴스 (20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소년의 모임 ISY(유아 보장 청소년 단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65723>]
- The Australian Curriculum. Australian Curriculum development timelines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Static/docs/Information%20Sheet%20Australian%20Curriculum%20development%20timelines.pdf>]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량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교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아동·육아·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교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4월 2일